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의향법 연구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머리말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직접 현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언어의 문법, 그 중에서 의향법(=문장종결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현대 한국어와 대조하여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9월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사람들이 원동에서 강제 이주당한 지 71년이 된다. 이들 고려사람들이 쓰는 말이 고려말이다. 고려사람들은 원래 1860년 이후 한반도에서 원동 지역으로 대량 이주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함경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다. 원동에 살고 있던 이들이 이른바 스탈린에 의해 1937년 9월과 10월 걸쳐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략 40만 명의 고려사람 가운데 고려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은 1%가 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 사용의 확산으로 고려말 화자가 점차 줄어들어, 고려말은 멀지 않아 절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주 당시 10세 나이, 그래도 당시 고려말을 자기의 언어로 익혔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지금 모두 80세에 이르렀다. 이 분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19세기말의 함경도 방언을 비교적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언어 유산, 고려말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나 민족문화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 문화의 유산인 고려말을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훌륭한 언어보유자를 찾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고려말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해 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 언어 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녹음기는 Marantz 녹음기며(모델 PMD670/U1B, 16bit, Stereo, 48KHz), 마이크는 헤드셋 마이크 Audiotechnica ATM75와 일반 마이크 Shure SM58 두 가지이다. 조사된 자료를 모두 형태 표기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웨이브 파일로 처리한 녹음 자료를 사운드 포지 프로그램(Sound Forge 9.0 프로그램, 2007년 SONY사)을 통해 여러 차례 듣고 전사하였다.

2. 분석 자료

이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고려말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실제 구술 자료 말뭉치이다. 구술 말뭉치 구축을 위해 고려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2006년 12월 22일 - 2007년 1월 10일

조사 장소: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비슈케크시

조사자: 김주원(서울대학교), 고동호(전북대학교), 권재일(서울대학교)

자료제공인

이름: 노안나 (Nogaj Anna Afanacievna)

성별: 여성

출생: 1925년 (조사 당시 82세)

주소: Kyrgyzskaja Respubliky, g. Bishkek, per. Timirjazeva, dom 11

교육: 초등학교 7년 (원동에서 3년, 카자흐스탄에서 4년)

생활: 12세 때까지 원동의 하산에서 친족 3호가 한 마을에 살다가 1937년에 강제 이주 당하였다. 이주 경로는 하산 → 뽀시에트 → 해삼위 → 주미냐르크이다. 그 이후 포드호즈, 로스토프스키 오블라스치를 거쳐 1974년부터 비슈케크에 와서 살고 있다.

특징: 원동으로 건너온 할아버지가 경상도(경상도??) 출신이라고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동 지방의 방언 특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조사 내용은 원동에서의 생활, 이주 과정,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에서의 여러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구술 자료, 친족 명칭, 신체 명칭, 의식주 명칭을 비롯한 어휘 자료, 그리고 음운 자료, 문법 자료 등인데,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구술 자료 가운데 여섯 기간 분량의 전사 자료이다. 전사 자료의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표시는 조사자 표시이며, = 표시는 자료제공인 표시이다.

- 그러믄 그, 아매는 인제 그 가족은 그렇고, 여기 와서는 남편하고 결혼은 언제 했어요?

= 일천구백사십구 연.

- 일천구백사십구 년. 고려사람임두?

= 고레사람.

- 음. 그, 식구는 몇임두?

= 아, 아들 둘이 딸 한내. 아, 쥐이느 돌아간지 오랍구마.

- 음. 아매는 여기와서는 그, 일은 무슨 일 했음두?

= 내? (- 음.) 내 지금 이야기 하지여. 우리 일천구백사십이 연도 독일 전쟁~ 났습지. (- 음.) 그래 독일 전쟁~ 난 뒤 우리 아버지 좀 그런 일 하다나이 노력전선~으로 다 남자들이 다 가고 촌에 뭍시 지뵈, 누기들이 지뵈는가 아이들가 늙으이들이, 여자들. (- 음.) 그래 (= 한숨) 우리 어마이도 일 많이 했습구마. (- 음.) 그래 우리 어머니 마흔둘에 돌아갔

- 지. (- 음.) 우리르 지치고. (- 아) 그래다 나이 내 집에 제일 큰 게지. 게, 나느 글도 모 이르고 동생들가 같이 살았습구마. (- 으흠.) 예, 괴래 우리 어마이 우리르 허, 기치고 일 짝 돌아가셨구마. (- 으흠.) 글도 내 모 많~이 모 읽었스. (- 음.) 다만 칠학년밖에.
- 그러면 여기 와서 고려말은 언제까지 썼습두?
- = 고려말으 우리 오래 아이 썼습구마. (- 음.) 와서 시아샤스끄르(러Сей час скажу) 우리 이주르 와서 그 해느 아무 데도 못 가고 집도 없지. (- 음.) 집도 없이 그저 이레 땅~이 땅~이다 막이다 이거 치고서레 제 가정가정 살아서 (- 음.) 그답에 사람들으 모다서 모여 서 무서그 했는가 하이 이 흑으 거주구 피르 쳐서 재빌러 집으 지었습구마. (- 음.) 재빌 러 모도 이렇게 집으 짓고. 그래다나이 그제또(Где-то) 우리 여기 들어와서 아무래 한 삼 년 글으 모 읽었습구마. 그답에 그답에 이, 스라스(러Срaзы) 러시아 글 넘어 갔습구마. 고려까지 없었습구마. (- 음.) 그래다나이 러시아 글 읽었습지. (- 음.)
- 말은?
- = 말으 잘 모르지만 해도 어찌했습두? (- 음.) 고려말 아이 하지. (- 으흠음.) 핵고서이. (- 음.) 그래다나이 러시아 글 읽었지. (- 음.)

한편, 고려말과 대조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는 ‘20-30 대 나이의 대학생, 회사원’의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제 대화 자료이다. 200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6회에 걸쳐 모두 여섯 시간 분량으로 녹음하여 역시 형태 표 기로 전사한 자료인데,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서울대학교 출판부)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3. 의향법의 실현방법

의향법은, 언어내용 전달과정에서 청자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이다(의향법의 개념과 하위범주 체계에 대한 기술은 권재일 1992:제5장 및 권재일 2004 참조). 의향법은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마침법, 문장 종결법이라는 명칭으로도 기술되어 왔다.

의향법은 전형적으로 종결어미인 의향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의향법은 화 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늘 청자높임법과 겹쳐 실현된다.

- (1) a. 철수는 책을 읽고 있-다.
b. 철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문장 (1)에서 ‘-다’, ‘-습니다’ 등이 의향어미이며, 이들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 향을 실현하며, 또한 ‘-다’와 ‘-습니다’의 대립에 의해 청자높임법을 실현한다. 그리 고 다음 (2)와 같이 의향법의 하위범주에는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이 있다.

- (2) a. 철수는 그 책을 읽었-다.

- b. 철수는 그 책을 읽었-느냐?
- c. 그 책을 읽-어라.
- d. 우리도 그 책을 읽어 보-자.

문법범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범주의 전형적인 실현 방법은 어미와 조사에 의한 것이다. 위 문장 (2)를 보면 의향법은 모두 고유한 의향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다음 (3)의 ‘-어/아’는 서술어미로뿐만 아니라, 의문어미, 명령어미로도 기능한다.

- (3) a. 이 책 한번 읽어 봐(=보-아). (명령문)
- b. 정말 재미있-어? (의문문)
- c. 응, 무척 재미있-어. (서술문)

이러한 ‘-어/아’와 같이, 어느 한 의향법에만 쓰이지 아니하고 하위범주인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두루 쓰이는 의향어미를 ‘범용 의향어미’ (줄여서, 범용어미)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범용어미는 ‘-어’와 ‘-지’ 등이 대표적이다.

고유한 의향어미, 그리고 범용어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접속어미들도 의향법을 실현할 수 있다. 각각 접속어미 ‘-려구, -면서’가 의문문을 실현한 경우이다.

- (4) a. 아, 태도 점수 높여 주-려구-요?
- b. 아니, 그 분은, 저희가, 그런 게 대물림이-라-면서-요?

다음 문장은 온전한 문장으로 끝맺지 아니하고, 문장조각으로 의문문과 서술문을 실현하고 있다.

- (5) A 어,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친척?
- B 네, 아시는 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한국어에서 의향법이 실현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6) 의향법 실현방법의 유형
 - a. 고유한 의향어미
 - b. 범용 의향어미
 - c. 접속어미의 전용
 - d. (온전한 문장이 아닌) 문장조각

4. 서술문

4.1. 고유한 서술어미에 의한 서술문

고려말은 청자높임법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그간 기술되어 왔다(이기갑 외 2000, 니라리사 2002). 해라체, 하오체, 합쇼체가 그 세 등급이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서술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라체

‘-다’

그냥, 또는 선어말어미 ‘-는-’이나 ‘-었-’을 앞세워 나타난다. 조사한 고려말 자료가 성인 간에 높임 표현으로 주고받는 대화인 까닭으로 ‘-다’ 형태는 자료에서 찾을 수 없고, 다만 인용절에서만 확인된다. (7a)의 첫 문장은 □ “만약에 아이 받는다.”고 말했습구마.□ 라는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인용절이라 하겠다.

- (7) a. “만약에 저쪽에 걸레 가는 사람으느 거기서 받지 아이며 이쪽에서 아이 받는다.”
b. “암만 맡게두 내 그거 노릇 내 할 노릇을 한다.”는 그 으미요. (☞아무리 말려도)
c. 이케 들은 게 무시긴가 하이꺼더 “경산도에서 오셨다.”는 그 말만 들었소. (☞무엇인가 하니)

‘-라’

‘이다’ 뒤에 결합한다. (8a)처럼 주로 인용절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와 마찬가지로이지만, 물론 보통 인용절이 아닌 문장으로도 쓰인다.

- (8) a. 로시아말로느 쎄르쑈비에트라 하는데, 고레말로느 우리느 “무시라” 하는가 하이 이해, 거기서 서기질 했습구마.
b. 차입쌀이나 매쌀이나 입쌀이라. (☞차입쌀=참쌀)

‘-대’, ‘-래’

‘-다’와 ‘-라’에 ‘-어’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여기 사람이래.”는 “여기 사람이라-고 해(=하-어).”에서 ‘-고 하-’가 생략된 형태로 풀이할 수 있다.

- (9) a. 노랗고 한 게, 이런 이삭이 달기 있대. (☞달려 있대)
b. 예, 채소 같은 거 그저 채래.

‘-다구’, ‘-라구’

역시 앞에 든 ‘-다’와 ‘-라’에 ‘-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 (10) a. 닭으 보쟁~이 베오리 다 부뜰어 갸다구. (☞닭을 지키지 않아서 병아리 다 잡아 갸다고.)
b. 핀스끼(финский) 집이라구. (☞핀스끼=핀란드식의)

[2] 하오체

‘-오/소’

높임의 어말어미이다. ‘-오/소’는 서술문에도 쓰이며, 의문문에도 쓰이기 때문에 앞의 (6)의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범용어미라 하겠다. 그러나 기술의 간결을 위해 이 자리에 하오체를 설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오’는 아래에서 살펴볼 ‘-구마’보다는 높임의 정도가 덜하다. ‘-오’는 모음 다음에 ‘-소’는 자음 다음에 나타난다.

- (11) a. 내 몫시 무식하게 말하오.
b. 시애미 시애비게 절하구 우리 본가집으 가야 되오.
(12) a. 우리 사는 데서예 쇠술기르 몰고 우리르 싣고 그 배 녀으로 왔소.
b. 한아버지 동생~이 집이느 사람이 작소.

[3] 합쇼체

‘-구마’

앞의 ‘-오/소’보다는 더 높임의 서술어미이다. 다음과 같이 ‘-슴두’라는 의문어미와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서술어미이다.

- (13) A. 맞은 어떻슴두?
B. 맞이 좋습구마. 예, 달쿠므리한 게.

‘-구마’의 형태적인 분포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시제 선어말어미를 앞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습-, -었-, -겠-, -더-’를 앞세우기도 한다. 그 가운데 ‘-습-구마’는 다시 ‘-었-, -겠-’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구마’

- (14) a. 다달도 하구 시쿠무리두 하구. 그런 맞이 있구마.
b. 올라온 거 이렇게 맨들구마, 요막시 떼서. (☞요만큼 떼서)

‘-습-구마’

(15) ‘-이다, 아니다’에 결합

- a. 내 시장~ 두째 메느 노시아 여잡구마. (㉠시장~=지금, 메느=며느리)
- b. 그러나 더 재미있는 거는 목사님 설교입구마.

(16) 형용사에 결합

- a. 쥐이느 돌아간 지 오랍구마. (㉠주인(남편)은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 b. 그 안에 자다만 씨들으 가득합구마. (㉠자다만=조그마한)

(17) 동사에 결합

- a. 그러고 무홀로 와서 합구마. (㉠무홀로=무료로)
- b. 내 잘 못해두 집에서두 노시아말 합구마.

‘-었-습-구마’

(18) a. 고레말으 우리 오래 아이 췌습구마.

- b. 우리 여기 들어와서 아무래 한 삼년 글으 모 읽었습구마.

‘-겠-습-구마’ (이 형태는 ‘모르다’와 결합한 예가 많다.)

- (19) a. 그런데 저쪽 집에서느 모르겠습구마,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앉았는지.
- b. 채밀깎으 그게 어 같기 달리겠습구마. (㉠채밀깎=(참)밀가루)

‘-습구, -습그, -스끄, -습금’ 등의 형태들은 각각 ‘-습-구마’ 형태가 절단된 형태로 보인다. 이 경우 높임의 정도가 덜하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합쇼체와 하오체의 중간 정도로 짐작한다.

(20) a. 저쪽 두만강~이 있었습구.

- b. 원동~서 조선글으 어 세 반 읽었습그. (㉠세 반=3년)
- c. 조선 땅~이 이전에 우리 살 적에느예 모지기 심했스끄.
- d. 오래비 둘 있었습금.

‘-었-구마’

(21) a. 친척이 세 호이 살고 그담에 나머지느이 꼬호스 췌었구마.

- b. 이에 에따 설날에 이상들 앞에 절하는 게 없었구마. (㉠이상=순위)

‘-겠-구마’

(22) a. 매쌀루 매쌀이 아이 되겠구마.

- b. 그전에느 아무래 원동~서 집에서 만들었습겠구마.

‘-더-구마’

- (23) a. 떡으 칩더구마. 망치러 가지구. (㉠망치러=망치로)
 b. 수닭이 이른 새복으머 웁더구마. (㉠새복으머=새벽이면)

‘-드마’ (‘-더-구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4) a. 보리느 톨꼬(ТОЛЬКО) 이거 전에 그거 하드마. (㉠톨꼬=다만, 단지)
 b. 괴래 원동~서느 거반 그 질그릇이 있드마예.

‘-습-드마’

- (25) a. 괴래고서리 그 우에다 그거 내리 누르는 것도 어 이런 쇠쟁~이습드마.
 b. 이렇게 이레 등그랑게 이마이 높으습드마. (㉠이마이=이만큼)
 c. 여호두 잡고 그담에 이, 괴래말로 무스기라 하는가 하이까더 산달피다 합드마.

‘-였-습-드마’

- (26) a. 개 해삼으르 들어오이꺼드나 그기 에따(это) 짐차들 가뜩 섰습드마. (㉠에따=음, 그리고)
 b. 올라가 앓는 다리르 났습드마.

‘-였-드마’

- (27) 국시르 그전에는 재빌루 놀렀습구마. 틀으 그렇게 맨들였드마.

‘-습드, -습두, -습데, -습디, -습더, -습더우’ 등의 형태들은 각각 ‘-습-드마’ 형태가 절단된 형태로 보인다. 이 경우도 역시 높임의 정도가 덜하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합쇼체와 하오체의 중간 정도로 짐작한다.

- (28) a. 꺼플으 발라서 그거 싹 말리워서 그담에 바칩드.
 b. 우리 할머니느 조선 우티르 입습데. (㉠우티=옷)
 c. 괴래고 동지르 세고, 그담에 오월 기렘 셍더.

‘-습니다’

이 형태는 “감사합니다”의 예에서만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구어 고려말은 아니다. 문어 고려말에서도 쓰이지만, 조사한 고려말 자료에 보이는 것은 아마도 현대 한국어에서 들어온 말로 보인다.

한편 조사한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고려말의 높임의 서술어미에는 ‘-으귀니’가 더 있다(박벨리 2008:38).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서술문을 실현하는 고유한 서술어미 각각의 구체적인 빈도

는 다음 표와 같다. 백분율은 서술문 전체 실현에 대한 비율이다.

(29) 고유한 서술어미의 빈도

서술어미	빈도수	백분율(%)
다	28	1.17%
라	17	0.71%
대/래	12	0.50%
다구/라구	10	0.42%
오/소	211	8.84%
구마	568	23.81%
습구	59	2.47%
드마	82	3.44%
습드	62	2.60%
습니다	2	0.08%
합계	1051	44.05%

서술문 전체 2386 예 가운데 고유한 서술어미로 실현된 경우는 1051예로, 전체의 44.05%에 이른다. 그리고 조사한 고려말 자료가 성인 간의 높임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의 서술어미 ‘-구마’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마, -습-구마, -었-구마, -겠-구마’를 비롯하여 ‘-습-구’를 포함한 ‘-구마’ 형태가 627예로 26.28%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오/소’ 형태로 211예가 나타난다. 이는 서술문 전체의 8.84%에 해당한다. 다음은 ‘-드-마’ 형태로 ‘-습-드’ 형태를 포함하여 144예이다. ‘-습니다’ 형태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자료는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는 바로 대조할 수가 없다. 대화가 이루어진 화자-청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고려말 자료는 성인 간에 높임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이고,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는 청년들끼리의 대화, 청년과 어린이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에는 나타나지만 조사한 이 고려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서술어미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네, -으이, (-습니다), -습디다, -구나, -구만, -으마, -을게, -음세.

4.2. 범용어미에 의한 서술문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대표적인 범용어미는 ‘-어’와 ‘-지’이다. 그리고 이들은 ‘-요’와 결합하여 ‘-어요, -지요’로도 쓰인다. ‘-어’와 ‘-지’ 가운데서도 ‘-어’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서술문 가운데 ‘-어’가 43.96%를 차지하고 ‘-지’가 10.64%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권재일 2004:21 참조). 그러나 고려말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범용어미 자체의 빈도도 낮고, 또 ‘-어’보다는 ‘-지’의 분포가 훨씬 높다.

‘-어’

- (30) a. 높이 높은 집두 있구 낮은 집두 있어.
b. 전장~느 고려사람 아이 가져 갔어. (☞전쟁터에 고려사람은 안 데려갔어.)

‘-어’ 뒤에는 ‘-요’나 ‘-에’가 결합하여 높임을 나타낸다.

- (31) a. 사월달에 우리 목사님 왔어요.
b. 그래서 그 꼬이까(Кой ка) 시장~ 이제 여기르 들어왔어예.

‘-지’

- (32) a. 채소구 뽕시기구 옥수끼구 밭에 감제구 가뜩하지.
b. 괴래 거기 무스기 또 무슨 마이 채소나 뽕 고기나 있었겠지.

‘-지’는 다음과 같이 ‘-제’, ‘-지러’, ‘-지므’ 등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 (33) a. 문이? 문의 장제문~이라 하제, 그저. (☞장제문~=올타리문)
b. 삼년간은 군인. 군인~이지러.
c. 괴래 아무래 되비 돌아갔겠지므. (☞되비=다시)

‘-지’가 ‘-습-’을 앞세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34) a. 노보시비리스크 와서 우리 그 이주르 해 사람 참 많습지.
b. 우리 일천구백사십이연도 독일 전쟁~ 났습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서술문을 실현하는 범용어미 각각의 구체적인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백분율은 서술문 전체 실현에 대한 비율이다.

서술문 전체 2386예 가운데 범용어미에 의한 서술문은 936예로, 39.23%에 이른다. 범용어미 가운데 ‘-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는 구체적으로 ‘-지, -제, -지러, -지므, -습지’ 등으로 나타나는데, 서술문 전체의 28.79%로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어’는 10.44%에 그친다. 이는 ‘-지’보다 ‘-어’의 빈도가 훨씬 더 높은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어’에 의한 서술문은 43.96%에 해당하고, ‘-지’에 의한 서술문은 10.64%에 해당한다(권재일 2004:21).

(35) 범용어미의 빈도

범용어미	빈도수	백분율(%)
어	249	10.44
지	687	28.79
합계	936	39.23

4.3. 접속어미에 의한 서술문

현대 한국어의 경우, 접속어미 ‘-는데, -거든’은 거의 의향어미로 기능하기도 한다. 조사한 고려말 자료에 따르면, ‘-고/구, -거든, -는데’ 등이 서술문에 나타난다.

‘-고/구’

- (36) a. 그래 사람두 많구.
b. 여기 와서 시장~ 무홀로 치료하구.

‘-거든’

- (37) a. 까작스탄 들어왔으 직에 한아버지 일흔여섯에 돌아갔거든.
b. 지금으까페(кафе)나 레스따란(ресторан) 하거드야.

‘-는데’

- (38) a. 그 행~이 있었으며 말씀 잘 해 드리겠는데. (행~=형)
b. 산으로 예또 모르 가는 것밖에 모른데.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서술문을 실현하는 접속어미 각각의 구체적인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백분율은 서술문 전체 실현에 대한 비율이다.

(39) 접속어미의 빈도

접속어미	빈도수	백분율(%)
고/구	165	6.92
거든	2	0.08
는데	65	2.72
합계	232	9.72

접속어미가 전용되어 서술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232예로, 전체의 9.72%로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가운데 ‘-고/구’와 ‘-는데’가 각각 6.92%와 2.72%로 나타났으나. ‘-거든’은 겨우 2예로 0.08%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고’는 전체의 3.46%를 차지하며, ‘-거든’은 5.95%, ‘-는데’는 6.09%로 나타나, 조사한 고려말 자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친다. 한편 서술문 실현에 관여하는 현대 한국어의 접속어미는 다음과 같다: -는데, -거든, -으니까, -어가지고, -어서, -으려고, -으면서, -지만, -게, -느리고, -더니, -어도, -으라고, -으면(권재일 2004:23).

4.4. 문장조각에 의한 서술문

온전한 문장으로 서술문을 이루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문장 (40)은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다. [B]는 모두 온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서술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예는 전체 서술문 2386예 중, 167예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40) a. [A] 이웁이?

[B] 안나. 성씨는 노. 그래서 여기서느 노가이.

b. [A] 막중 오래비?

[B] 예. 윈 작은 오래비.

특히 ‘모양~’으로 끝맺는 예들이 자주 보인다.

(41) a. 그래 아무래 이 러시아 땅~으르 넘어왔드 모양~.

b. 사냥하는 게 그런 아무래 기간~이 있었느 모양~. (¶기간=기관, 사무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예도 문장조각에 의한 서술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간만으로 문장을 끝맺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42) a. 아이 바치.

b. 쇠르 아이 잡구. (¶쇠=열쇠)

c. 거기다서 곡석 심우. (¶곡석 심우고)

d. 베치매나, 아, 쪽웃이나, 벨르 싸 멘드 (¶베로 싸 만들었어요.)

4.5. 정리 및 대조

전체 자료 2837 문장에서 서술문은 모두 2386예가 나타났다. 이를 실현 유형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서술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서술어미	1051	44.05
(2) 범용어미	936	39.23
(3) 접속어미	232	9.72
(4) 문장조각	167	6.70
합계	2386	1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어미에 의한 실현이 가장 높아 44.05%이고, 다음이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이 39.23%로 약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접속어미에 의한 실현, 문장조각에 의한 실현이 각각 9.72%, 7.70%로 나타났다. 이를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권재일 2004:17).

(44)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의 서술문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서술어미	312	13.66
(2) 범용어미	1522	66.64
(3) 접속어미	147	6.43
(4) 문장조각	303	20.74
합계	2284	1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이 전체 66.64%로 압도적이다. 전체 2/3을 차지한다.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이란, 범용어미는 의향법을 표지하고, 운율적 방법인 내림억양이 서술법을 표지한다. 위 결과를 보면, 현대 한국어의 구어에서 운율적 방법의 도움을 받은 범용어미가 조사한 고려말의 경우보다는 서술문 실현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유한 서술어미에 의한 서술문은 13.66%로, 범용어미에 의한 서술문의 1/5에 그친다. 그리고 ‘체언, 체언+조사, 부사어, 감탄어, 관형어’ 등으로 끝맺는, 문장조각의 서술문은 20.74%로 나타나, 오히려 고유한 서술어미에 의한 실현보다 빈도가 높다. 접속어미를 전용해서 실현하는 경우는 6.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대 한국어 구어와 조사한 고려말의 서술문 실현의 특징을 대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말의 서술문은 청자높임의 등급에 따라 ‘-구마’, ‘-오/소’, ‘-다’와 같은 서

술어미로 실현된다. 서술어미에 의한 서술문 실현은 고려말에서 44.05%,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13.6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사한 자료가 성인 간의 높임 표현을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서술어미 각각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 빈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 대조할 수는 없다. 다만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에 나타나면서 조사한 이 고려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서술어미에는 ‘-네, -으이, (-습니다), -습디다, -구나, -구만, -오마, -을게, -음세’ 등이 있다.

2. 범용어미에 의한 서술문 실현의 경우,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 대조할 때, 첫째 현대 한국어는 서술문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6.64%에 이르러 비중이 높은 편인데 비해, 고려말 자료에서는 39.23%에 머무른다. 둘째,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가 비중이 높은 범용어미였으나, 고려말에서는 ‘-지’가 비중이 높은 범용어미였다.

3. 접속어미로 실현되는 서술문의 경우, 현대 한국어와 비슷한 비중으로 실현되었으나, ‘-고/구, -거든, -는데’로 국한되었다.

4. 문장조각에 의한 서술문 실현의 경우는 조사한 고려말과 현대 한국어가 각각 6.70%와 20.74%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고려말에는 용언 어간만으로 문장을 끝맺는 예가 흔히 보여 특징적이었다.

5. 의문문

5.1. 고유한 의문어미에 의한 실현

고려말의 의문문 역시 청자높임법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그간 기술되어 왔다(이기갑 외 2000:48, 나라리사 2002:32). 해라체, 하오체, 합쇼체가 그 세 등급이다. 이러한 등급별로 의문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라체

‘-을까’

조사한 고려말 자료가 성인 간에 높임 표현으로 주고받는 대화인 까닭으로 ‘-을까’ 형태는 자료에서 찾을 수 없고, 다만 인용절에서만 확인된다. 문장 (45)는 □ “어떻게 했음으 어머니를 치료할까?” 해서□ 라는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인용절이라 하겠다.

(45) 큰 아들이 공부르 다하고 어떻게 했음으 어머니르 치료할까 해서.

‘-은가/는가/던가’

‘-은가/는가/던가’는 인용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장 (46)은 인용절에 나타난 예로 (46a)의 첫 부분은 □ 그답에 “다른 가정~이 누긴가?”

하이꺼더□ 라는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인용절이라 하겠다. 문장 (47)은 각각 ‘-은가’, ‘-는가’, ‘-던가’가 나타난 예이다.

- (46) a. 그답에 다른 가정~이 누긴가 하이꺼더 우리 한아버지 동생~이 집이.
b. 일리나느 조선 이름으 한아버지 머시라 졌는가 복순~이 일리, 복순이.
(47) a. 일리(Или) 열다섯 살인가?
b. 그래서 거기서 무스그 주는가?
c. 부영~이라든가? (☞부영~이=부영새)

‘-은지/는지/던지’

‘-은지/는지/던지’는 인용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장 (48)은 인용절에 나타난 예로 (48a)는 □ “무슨 밥이라 했든지?” (내) 모르지.□ 라는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인용절이라 하겠다. 문장 (49)는 인용절이 아닌 경우에 나타난 예이다.

- (48) a. 모르지 무슨 밥이라 했든지.
b. 이해? 어 내 잘 모르겠어, 내 옳게 말하는지.
(49) a. 그때 엘에듭 살인지? (☞엘에듭=열여덟)
b. 어떻게 말했으며 옳게 말하겠는지?

[2] 하오체

‘-오/소’

높임의 어말어미로, 서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에도 쓰인다. ‘-오’는 모음 다음에, ‘-소’는 자음 다음에 나타난다. 아래서 살펴볼 ‘-음두’보다는 높임의 정도가 덜하다.

- (50) a. 감자나 영는 거 뭐시라 하오? 마대락 하오?
b. 행님 장물 그릇은 어찌 없소? (☞형님 국그릇은 왜 없소?)
c. 인베로 굶은 거 말이오? (☞얼마나 굶은 것 말이오?)

[3] 합쇼체

‘-음두’

앞의 ‘-오/소’보다는 더 높임의 어말어미이다. 서술어미 ‘-구마’와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의문어미이다.

- (51) a. 쟁사도라든지. 쟁사도, 그런 곳 있음두? 그 어디~~뎌~~두? 세베름두(Северн

- ый)? 유즈(Южный)?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b. 내 말으 프로페소르 이해합두? (㉠내 말을 교수님 이해합니까?)

부정 구문에서는 부정을 나타나는 ‘-쟁이-’(㉠현대 한국어, -잖-)를 앞세운다.

- (52) a. 옷물으 찌운다는 게 그 우에 물으 다른 그릇에다 찌우쟁~임두? (㉠찌우다= 옮겨서 붓다)
 b. 조선 치매느 이릉게 마이 너르구 지쟁~임두? (㉠넓고 길지 않습니까?)

‘-음두’는 ‘-었-’과 ‘-겠-’을 앞세울 수 있다. 이 경우 ‘-었-슴두, -겠-슴두’, ‘-었-겠-슴두’로 나타난다.

- (53) a. 더 이거 앞으로 못 나가지 엳엳슴두?
 b. 바사르(Базар) 나가며 돈만 있으며 무스그 못 사겠슴두? (㉠바자르=시장)
 c. 원 길로 그 무시기 에메 들어갔겠슴두?

‘-음다’ (‘-음두’와 기능이 같다.)

- (54) a. 괴래 수학두 주고, 어 그담에 그 무어시라 합다?
 b. 아휴. 감지르 할 때 그 뭘시기라 합다? (㉠감지=감주)

‘-습디’ (‘-음두’에 ‘-더-’가 결합한 기능으로 보인다.)

- (55) a. 오리, 기러, 무스기 있는 거 그런거 잡습디?
 b. 얹은 이거 그런거 가주구 이거 친구 그 우이다서 신쟁~임디?

의문문을 실현하는 고유한 의문어미 각각의 구체적인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56) 고유한 의문어미의 빈도

의문어미	빈도수	백분율(%)
을까	1	0.23%
은가/는가/던가	30	6.99%
은지/는지/던지	83	19.35%
오/소	85	19.81%
음두/음다	138	32.17%
습디	2	0.47%
합계	339	79.02%

의문문 전체 429예 가운데 고유한 서술어미로 실현된 경우는 339예로, 전체의 79.02%에 이른다. 그리고 조사한 고려말 자료가 성인 간의 높임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의 서술어미 ‘-음두’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슴두, -엇-슴두, -겠-슴두’를 비롯하여 ‘-슴다’를 포함한 ‘-슴두’ 형태가 138예로 32.17%를 차지한다.

한편 이 자료는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는 바로 대조할 수가 없다. 대화가 이루어진 화자-청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고려말 자료는 성인 간에 높임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이고,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는 청년 들끼리의 대화, 청년과 어린이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지만 조사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의문어미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으냐, -니, -습니까, - 습디까, -으랴, -을소냐/을손가, -남/은감, -계.

5.2.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은 매우 드물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 ‘-지’로 대표되지만, 고려말에서는 두 형태 모두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다. 의문문 전체 429예에서 51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범용어미 가운데 ‘-지’는 그래도 나타나지만, ‘-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서술문의 경우와 같다.

‘-어’

‘-어’와 이 ‘-어’에 높임의 조사 ‘-요’가 결합한 ‘-어-요’가 나타나지만, 이는 서울말의 영향으로 보인다.

- (57) a. 그 술한 사람 어디로 가져 가겠어?
 b. 내일 므스그 내게서 들을 게 있어?
 c. 내 지금 어디로 다니는 지 아 아세요?

‘-지’

- (58) a. 새해, 그담에 어 동지, 어, 그담에 새해 설이지?
 b. 단위라구두 하, 단위 이게 말이 아이 옳지? (㉠단위=오월단오)

‘-지’가 ‘-습-’을 앞세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59) a. 이 짝으 사람들도 그게 아마 친척이 있어 댕게겠습지?
 b. 재료사 아무래 국가서 쫘겠습지? (㉠재료사=재료야)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60) 범용어미의 빈도

범용어미	빈도수	백분율(%)
어	13	3.03
지	38	8.86
합계	51	11.89

이와 같이 범용어미 가운데는 ‘-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는 구체적으로 ‘-지, -습지’로 나타나는데, 의문문 전체의 8.86%로 빈도가 높은 편이 못된다. 더욱이 ‘-어’는 3.03%에 그친다. 이는 ‘-지’보다 ‘-어’의 빈도가 훨씬 더 높은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는 상반된 현상임은 서술문에서와 같다.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어’에 의한 의문문은 37.84%에 해당하고, ‘-지’에 의한 의문문은 14.17%에 해당한다(권재일 2004:30).

5.3. 접속어미에 의한 의문문

고려말 자료에 따르면, 접속어미를 전용해서 의문어미로 기능하는 예는 ‘-고’ 하나가 보인다.

‘-고’

- (61) a. 마당~이 있잖~고, 있잖~고?
- b. 고레인들이 아이고?

접속어미가 전용되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모두 8예, 1.86%로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현대 한국어 구어의 경우는 1.77%로 나타났으며, 의문문 실현에 관여하는 현대 한국어의 접속어미는 다음과 같다(권재일 2004:323): -고/구, -어가지고, -어서, -으려고, -으면서, -으면.

5.4. 문장조각에 의한 의문문

온전한 문장으로 의문문을 이루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로 의문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아래 문장 (62)는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다. 온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의문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예는 전체 의문문 429예 중, 31예 7.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 (62) [A] 아들도 가서 잠 잡는두?

[B] 내 아들이?

[A] 아니, 그, 아 아이들, 아이들.

[B] 아이들이? 그리 큰 아들 없었지.

5.5. 정리 및 대조

전체 자료 2837 문장에서 의문문은 모두 429예가 나타났다. 이를 실현 유형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3) 의문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의술어미	339	79.02
(2) 범용어미	51	11.89
(3) 접속어미	8	1.86
(4) 문장조각	31	7.23
합계	429	1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문어미에 의한 실현이 79.02%로 압도적이고,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 접속어미에 의한 실현, 문장조각에 의한 실현이 각각 11.89%, 1.86%, 7.23%로 나타났다. 이를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권재일 2004:27).

(64)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의 의문문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서술어미	163	15.19
(2) 범용어미	600	55.92
(3) 의문 명령 청유어미	33	3.08
(4) 접속어미	19	1.77
(5) 문장조각	258	24.04
합계	1073	1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이 전체 55.92%로 압도적이다. 위 결과를 보면, 현대 한국어의 구어에서 범용어미가 조사한 고려말의 경우보다는 의

문문 실현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유한 의문어미에 의한 의문문은 15.19%로,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의 1/4에 그친다. 그리고 문장조각의 의문문은 24.04%로 나타나, 오히려 고유한 의문어미에 의한 실현보다 빈도가 높다. 접속어미를 전용해서 실현하는 경우는 1.77%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대 한국어 구어와 조사한 고려말의 의문문 실현의 특징을 대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말의 의문문은 청자높임의 등급에 따라 ‘-음두’, ‘-오/소’, ‘-은가’와 같은 의문어미로 실현된다. 조사한 고려말 자료가 성인 간의 높임 표현을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는 대조할 수 없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에 나타나면서 조사한 이 고려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의문어미에는 ‘-으냐, -니, -습니까, - 습디까, -으랴, -을소냐/을손가, -남/은감, -게’ 등이 있다.

2.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의 경우, 현대 한국어 구어 자료와 대조할 때, 첫째 현대 한국어는 의문문의 1/2이 범용어미로 나타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비해, 고려말 자료에서는 나타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으며, 둘째,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가 비중이 높은 범용어미였으나, 고려말에서는 ‘-지’가 비중이 높은 범용어미였다. 이는 서술문에서와 같다.

3. 접속어미로 실현되는 의문문의 경우, 현대 한국어처럼 그 비중이 낮았으며, ‘-고/구’로 국한되었다.

4. 문장조각에 의한 서술문 실현의 경우는 조사한 고려말은 비중이 낮은 반면,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6. 명령문과 청유문

조사한 고려말 자료는 조사자와 자료제공인 사이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화 자료라는 특성상 명령문과 청유문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았다. 명령문이 쓰인 예는 극히 적었으며, 청유문은 없다시피 했다. 명령문은 21예, 청유문은 1예가 보인다.

6.1. 명령문

명령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두 명령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

[1] 해라체

‘-으랴’ (자료의 특성상 역시 인용절 구성에서만 나타났다.)

(65) a. 이레 가르고서리 이레 가르고 또 여기도 이레 가르고 기래 밀층 위층 기

래 네 가정씩 앉으라 그래.

- b. 우리 조합 회장~ 너는 아:들 끓에 맥이구 아:들 씨쳐 입히구 집에 있으
라 기레 일 아이 했어. (¶우리 조합 회장이 “너는 아이들 밥해 먹이고 (옷) 씻
어 입히고 집에 있어라.”라고 해서 일을 안 했어.)

그러나 실제 고려말에는 인용절이 아닌 경우, ‘-어라’, ‘-나라’, ‘-가라’ 등의 명령
어미가 쓰인다고 한다(니라리사 2002:36).

(66) a. 파리르 잡아라.

b. 잉게 오나라.

[2] 하오체

하오체의 명령어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말의 다른 자료에 따르면 하
오체 명령어미 ‘-오/소’가 쓰인다(니라리사 2002:36).

(67) a.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오.

b. 아지바이, 파리르 잡소.

[3] 합쇼체

‘-으시오’

(68) 예, 물으시오, 물으시오.

위의 ‘-으시오’ 형태는 고려말의 전형적인 표현은 아니다. 고려말의 다른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옵소’ 또는 ‘-옵서’ 형태가 고려말의 전형적인 명령어미이다
(니라리사 2002:35, 이기갑 외 2000:50, 박넬리 2008:38)

(69) a. 마이 잡옵소.

b. 이리 앉옵소.

6.2. 청유문

조사한 고려말 자료에서 청유문은 (70)과 같이 한 예가 보인다. 그러나 고려말의
다른 자료에는 청유문에 (71)과 같은 청유어미가 쓰인다. 예를 들면, ‘-자’, ‘-기오/
게오’, ‘-집소/줍소’가 각각 해라체, 하오체, 합쇼체의 청유어미다(니라리사 2002:37,
이기갑 외 2000:50, 박넬리 2008:39).

(70) 에이 다바여(давай) 어저 거기르 있으래 가자오. (¶다바여=무엇무엇을 하자)

(71) a. 이 문우 닫자.

b. 내가 같이 저녁으 먹게오.

c. 짐슴을 잡수겠소. / 가집소.

6.3. 정리 및 대조

조사한 고려말 자료는 조사자와 자료제공인 사이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화 자료라는 특성상 명령문과 청유문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았다. 전체 자료 2837 문장에서 명령문은 21예가 나타났으며, 청유문은 1예가 나타났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모두 명령어미와 청유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

현대 한국어 구어의 경우, 명령문은 명령어미에 의해 19.85%, 범용어미에 의해 80.15%로 실현되었으며(권재일 2004:35), 청유문은 청유어미에 의해 61.54%, 범용어미에 의해 38.46%로 실현되었다(권재일 2004:39). 이 자료를 그대로 조사한 고려말 자료와 대조하기 어렵다.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직접 현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언어의 의향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현대 한국어와 대조하여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혀 제시하였다. 문법 기술에 앞서 먼저 고려말을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자료제공인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 노안나(Nogaj Anna Afanacievna, 1925년생, 여) 씨였다. 여섯 시간 분량의 자연 발화를 전사하여 자료로 삼았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대략 40만 명의 고려사람 가운데 고려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은 1%가 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 사용의 확산으로 고려말 화자가 점차 줄어들어, 고려말은 멀지 않아 절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주 당시 10세 나이, 그래도 당시 고려말을 자기의 언어로 익혔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지금 모두 80세이 이르렀다. 이 분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19세기말의 함경도 방언을 비교적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언어 유산, 고려말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나 민족문화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 문화의 유산인 고려말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훌륭한 언어보유자를 찾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고려말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해 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고송무 1987,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 곽충구 1994, 카자흐스탄의 고려인과 고려말을 찾아서, 「전망」 1994-9, 대륙연구소.
- 곽충구 1999, 세기 전환기의 재외 동포 언어 연구 동향과 기대, 제33회 전국 어문학 연구 발표 대회 발표 요지문.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 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 2007, 현대 국어와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격조사 대조 분석,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 김마리나 2007, 카자흐스탄 고려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올가 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문제 연구: 1990년대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 김필영 2008,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나라리사 2002,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러쓰 킹·연재훈 1992,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 - 고려말, 「한글」 217, 한글학회.
- 박넬리 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 8, 한국어중언어학회.
- 박넬리 1997, Besonderheiten der Kasusformen des Yukchin dialektes des Koreanischen in Kazachstan, 「국어학논집」 3, 태학사.
- 박넬리 2008, 고려말의 규범(MOOD를 중심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백지원 2004,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부정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헌종 2000,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한글학회.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 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응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King, J.R.P. 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어학연구 23-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King, J.R.P. 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D. dissertations, Harvard University.
- King, J.R.P. 2006, Korean dialects in the former USSR,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 Vovin, A. 1989, Some data on the Soviet Korean Languages, 어학연구 25-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